

이청준, 「소리의 빛」

3114 안서현

특징 및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배경: 1960년대, 전라남도(장흥)
성격: 전통적, 예술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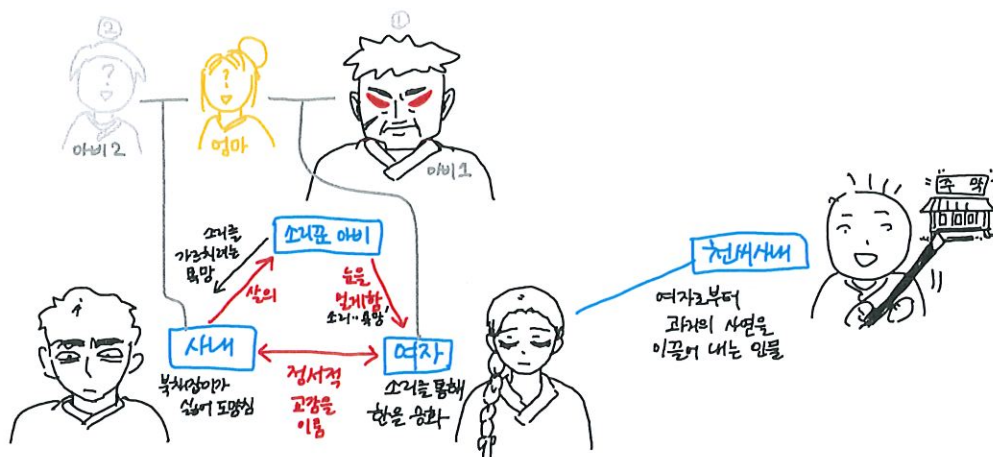
특징

1.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여 서술함.
2. 현재의 이야기 속에 과거의 사건이 삽입되는 액자식 구성이 사용 됨.
3.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전체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판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질문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홀어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복장단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인물관계도



(영상) 소리의 빛 TV문학관
1시간 11분 ~ 17분 35초

이청준 「소리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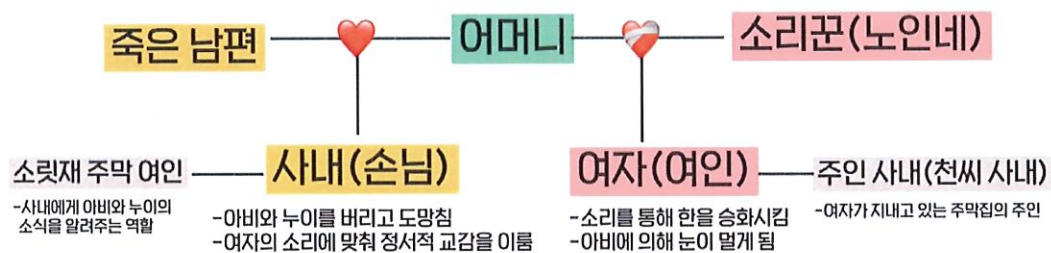
* 서편제: 유봉이라는 소리꾼이 자신의 딸인 송화에게 눈을 멀게 함으로써
한을 심어 주기 위해 일부러 약을 먹여 눈을 멀게 하는 내용.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배경: 1960년대, 전라도 남도 지방
성격: 전통적, 예술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특징

1.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여 서술함.
2.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구성: 현재 이야기 속에 과거사건 삽입)
-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간의 관계가 점차 드러나는 추리적 기법
3. 인물의 소리에 대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함.

인물 관계도



줄거리

- ① 사내의 어릴 적, 한 소리꾼이 사내의 할머니에게 다가왔고, 둘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됨. 그러나 사내의 할머니는 딸을 낳고 죽음. 이로 인해 사내는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로 소리꾼에게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살아감.
- ② 소리꾼은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인 사내를 데리고 노래를 부르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님. 그 사이 소리꾼은 딸에겐 소리를 가르치고 사내에겐 북장구를 가르침. 어느 날, 늘 소리꾼에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살던 사내는 소리꾼과 그 딸을 버리고 도망쳐 나옴.
- ③ 세월이 한참 흘러 사내는 소리를 따라 들어간 소리재 주막 여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소리꾼과 그 딸의 소식을 듣게 됨. 소리꾼의 딸은 눈 먼 장애인인데 이는 소리꾼이 딸의 소리를 윤택하게 하고 득음의 경지에 오르게 하기 위해 딸의 눈에 청강수를 넣어 실명을 시켰다는 이야기였음.

본문 내용

늦가을에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에서 일하는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여인이 단가를 불러주나, 사내는 진짜 소리인 판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눈 먼 여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묻고, 사내는 질문에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다. 그러자 여인은 사내에게 북을 쳐 달라 요청하고 그 북장단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한다.

여인도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눈치 채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소리의 빛 -이청준

3416 정재이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한(恨)'이 소리를 통해 길여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액자 구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여인과 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오라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갈래: 단편소설, 연작소설

성격: 전통적, 예술적

배경: 1960년대 전라남도 지방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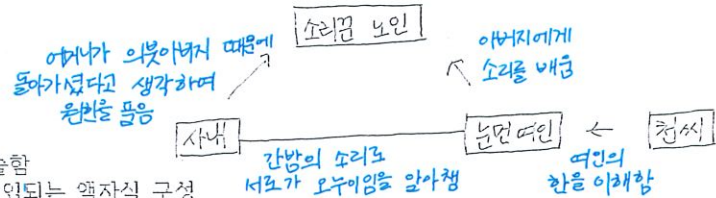
주제: 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특징: -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여 서술함

- 현재의 이야기 속에 과거의 사건이 삽입되는 액자식 구성

- 현재의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점차 드러나는 추리적 기법)

- 인물의 소리에 대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주요인물

여자	소리를 통해 한을 승화 시키는 인물, 아버지에 의해 눈이 멀게 됨, 천씨 사내의 집에서 소리를 하며 지냄, 자신을 찾아온 오라비의 장단의 맞춰 소리를 함
사내(손님)	복채잡이가 싫어 아버지와 누이를 버리고 도망친 인물, 여자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교감을 이룸, 용연을 보는 척하며 가족을 떠났음
소리꾼 아버지	소리를 통해 예술적 완성을 이루려 하는 인물, 오누이에게 소리를 가르치려는 욕망을 지님
천씨 사내	여자로부터 과거의 사연을 이끌어 내는 인물

사내와 여자의 관계

여자가 사내의 숨겨진 얼굴로 복장단을 잡아 달라고 요구함	여자와 사내는 서로 오누이 관계를 짐작하지만 내색하지 않음
사내는 여자의 소리만 시작되면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익숙한 숨씨로 장단을 잡음	
여자의 소리와 사내의 장단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룸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위의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판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질문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할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복장단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발단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옴
전개	사내는 눈이 먼 여자에게 소리를 청하고, 여자는 사내에게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음
위기	사내는 소리꾼인 의붓아버지와 누이 동생을 떠나 떠돌이로 산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 함
절정	여자와 사내는 밤새 소리와 장단을 나누며 서로가 오누이임을 알아차림
결말	여자는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은 뒤,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함

소리의빛과 서편제의 비교

	소설: 소리의 빛	시나리오: 서편제
공통점	- 소리를 통해 남매가 서로를 확인하고 교감함 -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함 -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소리로 교감하는 것을 들음	
차이점	- 손님이 여자의 오빠임 - 여자가 천씨 사내에게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	- 송화가 등호의 누나임 - 송화가 천가에게 등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

<소리의 빛> -이정준

3511 이수

-주제: 소리(판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갈래	단편소설, 연작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1960년대(시), 전라도 남도 지방(공)
성격	전통적, 예술적
구성	액자식 구성

-특징

- 전지적 서술자를 통한 직접 전달
- 액자식 구성을 이용한 주리적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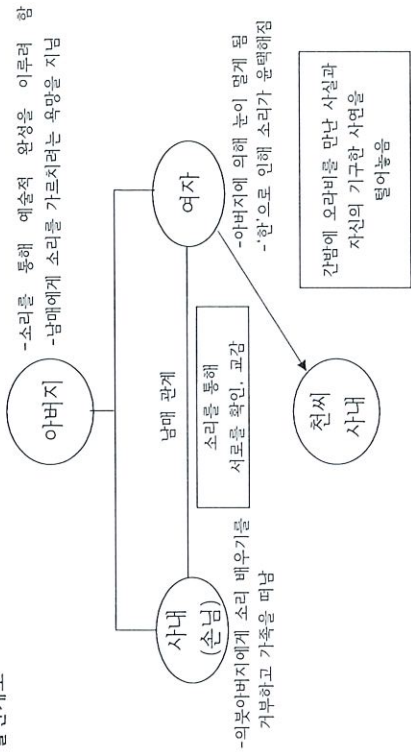
-줄거리

발단 (원제)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옴.
전개 (원제)	사내는 눈이 먼 여자에게 소리를 청하고, 여자는 사내에게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물음.
위기 (과거)	사내는 소리꾼인 의붓아버지와 누이 동생을 떠나 떠돌이로 산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함.
절정 (원제)	여자와 사내는 밤새 소리와 장단을 나누며 서로가 남매임을 알아차림.
결말 (원제, 과거)	여자는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은 뒤,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함.

-소리의 의미

아버지	소리꾼으로서의 예술적 이상을 완성시키려 함.
여자	자신에게 쌓여있는 '한'을 해소하려 함.
사내(손님)	가족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을 해소하려 함.

-인물관계도



<소리의 빛> 이청준

장르: 단편 소설, 연작소설

주제: 전통적, 여설적

배경: 시간: 1960년대

공간: 장흥읍 인근의 시골주막

제: 한의 여설적 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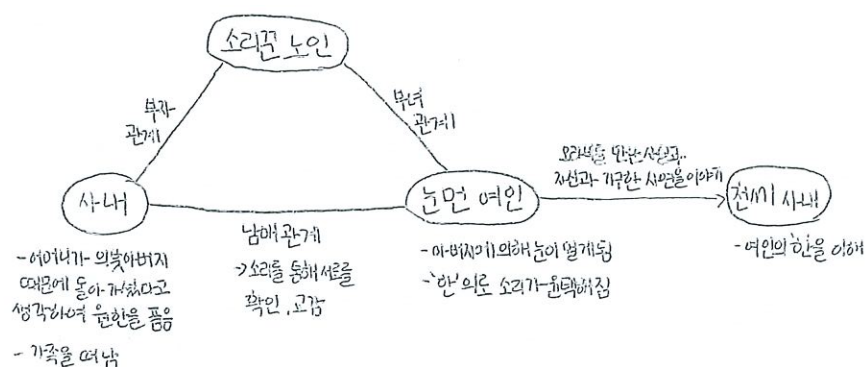
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장: ①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여 서술함.

② 현재의 이야기 속에 과거의 사건이 삽입되는 액자식 구성이 사용됨.

③ 인물의 소리에 대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함.

상인물



의자임

발단	늦게를 어는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천 씨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옴.
전개	사내는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하고, 여자는 사내에게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물음.
위기	사내는 소리꾼인 의붓아버지와 누이동생을 떠나 떠돌이로 산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함.
절정	여인과 사내는 밤새 소리와 장단을 나누며 서로가 오누이임을 알아차림.
결말	여인은 자신의 시련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은 뒤, 주막을 떠날 것 이라고 말 함.